

건설이나 중단이나 연기나...광주 도시철도 2호선 오늘 결론

시민 여론·국회의원 의견 수렴 마무리...윤시장 기자회견서 최종 입장 발표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연기하느냐’
 윤정현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2호선 건설 여부를 광주의 미래 세대에 선물이 될지, 아니면 애물단지가 될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일단 시민의견 수렴 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시민공청회 일정을 마무리한 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최종 의견을 교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끝냈으며, 윤 시장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1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윤 시장은 지난 30일 오전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총무 광주시당 위원장 박주선·김동철·장병완·박해자·권은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등과 만나 2호선 건설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지역 국회의원 중 강기정 의원만 불참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윤 시장에게 2호선 건설 여부에 따른 장단점과 지역 내 여론 등을 전했으며, 윤 시장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다양한 말들을 경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는 만큼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참석 의원 중 일부는 “이번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과정에서 재정부담 등 윤 시장의 고민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건설이든 중단이든 (윤 시장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의견 수렴을 끝으로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다. 시민회의에는 총 514명의 위원 중 230명이 참석했으며, 총 16명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공개 발언을 했다. 위원들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가 하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위원도 있었다.

2호선 건설 찬성론자들은 교통 복지 및 편의성, 친환경 미래교통 등을 주장했으며, 건설 반대론자들은 막대한 건설 및 운영 적자에 따른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 부실, 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미래 광주 도시 교통량 감소 등을 강조했다.
 반면 조건부 찬성론자들은 2호선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2015 광주U대회 또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이후로 건설을 미루자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최근 광주시 안팎에서도 2호선 착공시기를 광주 U대회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는 ‘연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로 총 사업비 1조 9053억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된다.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마지막 절차인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지난 2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회의에는 전체 514명 시민 위원 중 230명이 참석해 찬반 의견을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야 담뱃값 2000원 인상·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합의

예산안 심사 이틀 연장...“2일 본회의서 수정안 처리”

여야가 물리적 시간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새 예산안을 최종 이틀 더 심사하기로 지난 30일 합의했다.
 여야는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예산안을 더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이 밝혔다.
 이로써 예산안 법정 심사 시한은 준수하지 못하게 됐지만, 여야는 기존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예결위 활동이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 기존 예결위원들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완성하고 본회의에 제출,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홍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산 심사 지연 이유에 대해 “누리 과정 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비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틀 전 자정에야 교육부 감액 심사에 착수, 짧은 시간 내에 예결위와 감

액·증액 심사를 체계적으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일부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원을 조금 넘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여야 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야당의 직접적인 보이콧 배경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준중등 전액 상당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

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기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연 총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 추진을 ‘서민 증세’라며 재정지연합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해왔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세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을 다루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파행을 거듭했다.

장 협의회장은 이어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의 발효 위한 해소와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방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집행 유보’ 결의 수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통과된 후 12월 중 긴급총회 또는 내년 1월 임시총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 예산 관련 합의의 주요내용

- 누리과정 예산 완성**
 -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준수 시 재정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전하기 위해 순증분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확보
 - 비과세·감면 혜택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기분공제 제외)
 -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담기분 공제를 인화
- 법인세**
 - 담뱃세 2000원 인상
 - 정부 부속기관 등에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 담뱃세**
 - 2015년도 예산안, 전체까지 법안외 특과안 발의, 국공립대대 상설교수제에 대한 연장협상 등, 국회 본회의 개회 후 중안 12월말 본회의 처리
 - 당일 간 행정합의는 법안외 정기국회까지 내 처리
- 주요 법률안 처리**
 - 이른바 ‘사치금지’ 관련 지방교육·법인세 관련 법안, 공무원급제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한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 종료 이후 10월 말까지 - 연내 처리
 - 가-2 연세외에서 특별 사자
- 4차방 국조-중부등 금융 개혁법**
 - 예산 부수법안 중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회계법정법정제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은 개정 안함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무안출발 **방콕 전세기 취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콕 전세기 출발일 표기

● 방콕 전세기 출발일 표기

● 방콕 전세기 출발일 표기

● 방콕 전세기 출발일 표기

지역별 추천 허니문 상품

하와이 에디션

AA1010-02C 오아후 6일 레아로 와이키키

AA1010-02C 오아후 6일 레아로 와이키키

AA1010-02C 오아후 6일 레아로 와이키키

특별한 하나투어 호주/뉴질랜드 여행

① 매주 금요일 100% 출발 ② 8명 이상부터 인솔자 동행 (단, 클래스 상품 한정)

③ 대한항공 최다 불려 확보 ④ 국내 유일 호주 & 뉴질랜드 하나투어 지사운영

⑤ 사전 예약 최대20만원 할인 제공 (단, 클래스 상품 한정)

특별한 하나투어 호주/뉴질랜드 여행

① 매주 금요일 100% 출발 ② 8명 이상부터 인솔자 동행 (단, 클래스 상품 한정)

③ 대한항공 최다 불려 확보 ④ 국내 유일 호주 & 뉴질랜드 하나투어 지사운영

⑤ 사전 예약 최대20만원 할인 제공 (단, 클래스 상품 한정)

■ 여행상품 가격표에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보험료·관광진흥기부금·운송세·숙박세·음식료·여행자보험·현지관광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이드에게 가이드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된 항목에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집요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에 참여하는 고객은 선택관광에 참여하는 고객은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집요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상황에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산/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당일 보증금 22억 1천만원 기입